

민생·개혁 과제 중단 없이 마무리... 성과로 보답할 것

전북의 힘으로 대한민국 정치 중심에 서다

전북 익산을 출신 3선 국회의원이 한병도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역사상 최초로 원내대표 연임이라는 새로운 기록을 썼다

이번 원내대표 연임은 단순한 지리의 연장이 아니다. 이재명 정부의 안정적 국정 운영과 민생 회복, 그리고 지방선거 승리를 이끌 적임자라는 당 안팎의 기대가 담긴 결과라는 평가다. 한 의원이 집권 여당 원내 사령탑을 연이어 맡게 됐다는 점에서 전북 정치 사에도 큰 의미 있는 장면으로 기록되고 있다.

한 원내대표는 온화한 성품 속에서도 핵심 현안을 끝까지 밀어붙이는 추진력과 뛰어난 정부 감각을 갖춘 정치인으로 평가받는다.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국정 경험을 쌓았고, 국회에서는 여야 협상과 당내 통합을 조율하는 실무형 리더십을 인정받아 왔다.

특히 그는 "정치는 국민 삶을 지키는 일"이라는 소신 있는 의정 철학 아래 민생과 협치, 소통을 특히 강조해

왔다

이번 원내대표 수락 연설에서도 민주당이 견지할 원칙은 오직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라며 "6.3 지방선거 압승과 국정과제 입법 완수"를 목표로 내세웠다. 그리고 "국민의 성공과 대한민국의 성공을 위해 다시 신발 끈을 조이겠다"고 밝혀 듣는 이로 하여금 감동을 선사했다.

당면 현안인 22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과 검찰개혁, 민생 법안 처리 등 과제가 산적한 가운데, 전북 발전 현안 역시 그의 양어깨 위에 함께 놓여 있다.

새만금 투자와 신공항 건설 2차 공공기관 이전 등 전북의 미래를 좌우할 굵직한 현안들이 중앙정치의 문턱을 넘기 위해 한 원내대표의 힘을 필요로 하는 시점이다.

이에 본보는 한병도 원내대표와 서면 인터뷰를 진행해 전북 발전 전략과 주요 입법 추진, 그리고 그의 정치 철학에 대해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Q. 민주당 최초 원내대표 연임에 성공하셨습니다. 먼저 소감부터 부탁드립니다.

- 다시 한번 중책을 맡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민생·개혁 과제를 중단 없이 마무리하는 당원과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과로 보답할 수 있도록 신발 끈을 튼튼하게 매겠습니다.

앞으로 1년은 이재명 정부 성공의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12월까지 현재 도출돼 있는 국정과제 입법을 모두 마무리해서 이재명 정부 성공을 든든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전북 발전에 대한 도민 여러분의 기대도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현대차그룹의 9조 원 투자를 시작으로 전북의 대도약을 힘차게 이끌겠습니다. 입법이면 입법, 예산이면 예산 원내대표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립니다.

Q. 새만금 현대차그룹 9조 투자로 인한 실행 입법인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 3차 개정안 통과에 대한 도민 기대가 큼니다. 신속한 법안 처리가 필요한데, 향후 처리 일정은 어떻게 될까요?

- 새만금이 미래 산업 거점으로 도약할 결정적 기회를 맞이했습니다. 2027년부터 AI·로봇·수소 등 현대차 투자 사업들이 순차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회의 역할은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는 일입니다. 투자가 적기에 실행될 수 있도록 43개 산업 특례 조문을 담은 '전북특별법' 3차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습니다.

지방선거 이후 후반기 국회가 구성되면 최우선 과제로 삼아 속도감 있게 처리하겠습니다

Q. 남원 공공의대 설치법 통과 이후 후속 조치가 더욱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의정원 유지에 대한 향후 추진 계획은 무엇입니까?

- 전북의 오랜 노력 끝에 지난 4월 국회 본회의에서 '국립의전법'이 통과됐습니다. 향후 연간 100명 규모로 양성되는 공공보건의료인력이 지역·필수 의료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법률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면 3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설립준비위원회를 설치해야 합니다. 해당 위원회에서 정관 마련과 교육과정 수립 등 전반적인 설립 준비 사무를 담당합니다.

설립준비위가 꾸려지면 소재지에 대한 논의도 구체화될 것입니다. 남원시가 부지확보와 행정절차를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종 유치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Q. 남원 중앙경찰학교 유치와 새만금 신공항 건설 문제가 지역 현안입니다. 해결 방안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 지난해부터 제2중앙경찰학교 최종 부지 선정 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규모 국공유지를 기반으로 한 남원

이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진행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고, 적시에 필요한 대응을 해나겠습니다.

새만금 신공항은 문재인 정부가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정책적 결단으로 첫발을 땀 사업입니다. 저도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으로서 예비타당성 사업 선정에 노력했습니다.

새만금 트라이포트를 완성시킬 핵심 사업입니다. 더 이상 지연돼선 안 됩니다. 집행정치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점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항소심에서도 정부가 충실히 대응할 것으로 기대하며, 국토부 등 유관 기관과 긴밀히 소통해 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Q. 제2차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 전북은 금융·농생명 중심기관 유치를 통한 '글로벌 금융·농생명 허브'를 완성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와의 구체적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 이재명 정부는 균형발전에 대한 굳건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2차 공공기관 이전도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대규모 프로젝트인 만큼 정부에서도 이전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신중하고 치밀하게 준비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토교통부가 공공기관 이전의 밑그림을 그리는데, 전북 국회의원이신 김윤덕 장관이 계십니다. 김 장관께서도 올 하반기에는 윤곽이 나올 것 같다고 했으니, 정부와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Q. 정부 공모사업과 국가예산 확보에서 원내대표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어떤 자세로 임하실 계획입니까?

- 소재부품장비 산업 특화단지, 양자클러스터 등 전북 도약을 위한 공모사업이 출몰이 예정돼 있습니다. 각 기초지방자치단체와 도청, 그리고 국회가 빈틈없는 공조 아래에서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업별로 유치 전략을 치밀하게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서는 전북 국가예산 10조원 시대'를 열었습니다. 내년도 예산 확보 과정에서는 정부안 편성 단계부터 각 부처와 기획예산처를 더 적극적으로 설득해 전북 도약의 마중물을 마련하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Q. 전주·원주 통합 문제와 관련한 갈등 불씨가 잠재해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행정통합은 주민 의사가 최우선으로 고려돼야 합니다. 정치권이 주도하는 통합은 오히려 갈등만 만들 뿐이라고 생각하며 구체적인 기대 효과와 예상되는 부작용을 주민들에게 가감 없이 설명하고, 충분한 토론과 숙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Q. 대광법 통과, 익산·전주 광역교통망 확충 등 전북인의 이동권 확보에 대한 비전은?

- 대광법 개정 후속 조치로 전주권 광역교통

사실 구축을 위한 16개 사업이 추려졌습니다.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돼야 합니다. 올해 내에 계획이 확정될 예정인데, 전북 사업이 착실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북이 더 이상 교통 소외 지역으로 불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Q. 이재명 정부에서 전북 인재 등용에 대한 기대도 큼니다. 어떤 전략을 갖고 계십니까?

- 이재명 정부에서 차관급 이상의 고위직에 11명의 전북 인재가 포진해 있습니다. 이들이 국정 전반에서 실력을 입증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전북 인재 등용의 폭이 더 넓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전북 인재들이 국가 발전의 핵심 동력이 되고, 그 결실이 다시 지역으로 돌아오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Q. 앞으로의 1년 이재명 정부 성공의 '골든타임'을 연말까지 현재 도출된 국정과제 입법 마무리

새만금 현대차그룹 9조 투자 실행 '전북특별법

3차 개정안', 후반기 국회 구성 후 최우선 처리

새만금, 여당 원내대표로서 전북 발전 정책 우선순위

이재명 정부 성공 견인, 전북 대도약 이끌어 나갈 것

Q. 지방선거 승리가 전북 현안 해결과 국가 지원 확대에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보십니까?

- 이번 지방선거는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만에 치러지는 첫 전국 단위 선거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국정 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월립' 민주당이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숙원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전북에서도 민주당이 확실하게 승리해야 합니다. 당·정·청이 한 몸처럼 유기적으로 움직일 때 예산도 입법도 원활하다고 생각합니다.

Q. 여당 원내대표로서 전북 발전을 위한 정책 우선순위를 꼽는다면 무엇입니까?

- 새만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사업계획이 흔들렸고, 불과 3년 전에는 무도한 윤석열 정권의 폭거로 예산이 78%나 삭감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당시 전북 국회의원들이 모두 삭발하고, '새만금을 살려 내라'고 외쳤습니다. 새만금은 전북도민의 애환이 고스란히 담긴 사업이고, 전북의 미래가 달린 핵심 과제입니다.

새만금이 발돋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새만금·전북 대혁신 TF'를 구성해서 지원에 나섰습니다. 새만금을 중심으로 전북의 성장축을 바로 세우고 인구 유입과 산업·일

자리 회복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Q. 국민의힘과의 협치와 민생법안 처리에 대해서는 어떤 원칙을 갖고 계신가요?

- 협치는 언제든 열려 있습니다. 다만, 협치가 국정 발목잡기나 정쟁의 명분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국민의힘이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걸겠다고 엄포를 놓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태도입니다. 경쟁도 일로 해야 합니다.

중동 상황 장기화로 민생경제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민주당은 지방선거 직후 비상 입법 체제를 재가동해서 민생 입법에 속도를 내겠습니다. 협치에 노력하되, 민생을 외면한 발목잡기에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단호히 대응하겠습니다.

▶ 한병도 원내대표는?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967년 전북 익산 출신으로 원광대학교 원광대학교 신명방송학과를 졸업했다. 대학 시절 총학생회장을 지낸 88세대 정치인으로,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투옥되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내며 국정 경험을 쌓았고, 국회에서는 예산·균형발전·지방자치 분야에서 국민과 민생을 최우선에 두고 목소리를 내왔다. 온건하고 합리적인 성향, 뛰어난 조정 능력을 갖춘 통합형 리더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여야를 가리지 않는 친화력과 안정적인 리더십으로 당내 신뢰를 얻으며 민주당 최초 원내대표 연임이라는 신기록을 세웠다.

전북 정치권 안팎에서는 "한병도 원내대표를 통해 전북 정치가 더 이상 중앙 정치의 변방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앞으로 한 원내대표가 집권 여당 원내 사령탑으로서 전북 발전과 국민 통합, 민생 회복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어떻게 풀어갈지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며, 전북도민들은 큰 기대를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

Q. 의원들께서는 전북 정치인 중 원내대표 연임 등 한국 정치사를 다시 쓰는 가장 큰 성공을 이루셨는데 평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정치 철학은 무엇입니까?

- 정치는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견을 갈등으로 키우지 않고 국민을 위한 성과로 바꾸는 힘은 결국 소통에서 나옵니다. 정치는 서로 다른 생각을 가졌더라도 끊임없이 대화하고 조율하며 더 나은 결론을 도출해 내는 과정입니다.

당내 소통, 당·정·청 소통, 대야 소통 등 원내대표로서의 주요 임무이기도 하지요. 검찰 개혁 완수를 위한 '공소창법'과 '중수창법' 처리 과정에서도 소통의 중요성을 한 번 더 느꼈습니다. 앞으로 소통 강화에 더 노력할 생각입니다.

Q. 마지막으로 전북도민과 국민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고유가·고물가로 어려움이 많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당·정·청 협력을 기반으로 민생 회복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아울러 원내대표로서 이재명 정부 성공을 견인하고, 전북의 대도약을 책임 있게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늘 그랬듯이, 낮고 겸손한 자세로 도민 여러분과 동행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만호 기자·익산=이재훈 기자